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3. Vol. 8, No. 2, 415-442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김 명 소[‡]

김 혜 원

호서대 경상학부

호서대 인간개발학부

차 경 호

임 지 영

한 영 석

호서대 경상학부

마음사랑

성균관대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남녀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평가하는 척도를 제작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과 심리적 안녕감과과의 관계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모두 세 차례의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FGI형식으로 이루어진 1차 조사에서는 성인남녀 61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의 특성들을 조사하여 중복된 응답을 제외하고 152개의 특성들이 도출되었고, 각 특성들의 유사성에 따라 18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성인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 1에서 도출된 행복한 삶의 각 특성이 한국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3.5미만의 평균평정치를 보이는 문항 4개를 제외하고,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요인들에서 일개념성과 비교적 수용할만한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일개념성과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문항들에 대한 삭제 및 수정을 하고 종교요인의 신설을 통해 156개의 예비문항들이 구성되었다. 3차 조사에서는 전국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 척도 예비 문항들과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문항들을 함께 실시하여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조사 3에서의 응답결과에 대한 분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먼저 877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 선정을 위한 탐색적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74-HM1016).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명소, (110-745)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120-1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E-mail : mskim@office.hoseo.ac.kr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후 최종 16개요인, 9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행복한 삶 척도가 마련되었다. 나머지 611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복한 삶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 척도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적절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행복한 삶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주요어: 행복한 삶 척도,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삶의 질의 연구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지만 대부분 소단위의 연구였으며 전국확률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적 요인들을 제외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만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삶의 질 또는 행복이란 개념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정작 개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 나이, 성별,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주관적 삶의 질의 변량을 모두 합해도 주관적 삶의 질의 총 변량의 약 15% 이하로 나타난다(Diener, 1984, 1994; Myers & Diener, 1995). 그러므로 심리학자들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개개인의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Cantril, 1965; Andrew & Withey, 1976; Campbell, 1976). 이러한 연구들은 주관적인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행복(happiness)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진행되

어 왔다.

주관적인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복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첫째,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Campbell(1976)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건강, 부, 명예, 육체적 안락 등과 같은 외적 조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 자체에 행복의 본질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행복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한다(Bradburn, 1969). 셋째, 행복은 개인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비록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정서반응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행복의 핵심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관적 안녕감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있는가? Diener(1984, 1994)는 주관적 안녕감이 삶에 대한 태도로써 기본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Campbell(1981)이 지적했듯이 인지적-정서적 요소의 구분은 대부분 어느 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삶의 만족에 초점을 둘 때 그 평가는 인지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고, 일상생활의 경험에 초점을 둘 때 그 평가는 정서적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지적 요소는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며 정서적 요소란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반응을 의미한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들을 비교하여 삶의 여건들이 자신의 기준과 일치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이다. 물론,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많은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도구들은 두 차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여러 연구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이 구분됨을 보여주었다(Andrews and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and Rodgers, 1976).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차원은 삶의 여건에 대한 정적인 정서반응과 부적인 정서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데 그 이유는 많은 연구들이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가 서로 독립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Bradburn, 1969; Emmons and Diener, 1985; Diener and Emmons, 1984; Diener and Larsen, 1984; Kammann, Farry, and Herbison, 1984; Stones and Kozma, 1985; Warr, Barter, and Brownbridge, 1983). Bradburn(1969)은 행복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포괄적 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는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험자에게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과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을 제시하고 ‘지난주 동안 이런 정서를 얼마나 자주 느꼈는가’에 응답하게 했다. 긍정적 정서의 경험빈도에서 부정적 정서의 경험빈도를 뺀 점수를 정서균형점수(Affective Balance Scale; ABS)라하고 이 점수를 행복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Bradburn은 긍정적 정서의 빈도점수와 부정적 정서의 빈도점수가 서로 독립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약화시켜야 함을 제안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의 바람, 기대, 희망 또는 다른 준거집단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한 인지적인 평가인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을 포함한 정서적 안녕감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Andrews & Withey, 1976).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주관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최근 Ryff(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와 그의 동료들은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가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그리고 부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제안하였다. Ryff(1989; Ryff & Keyes, 1995)는 주관적 안녕감보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 주관적 삶의 질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Ryff(1989)는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임상, 상담, 발달 심리학 등에서의 여러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그리고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과 같은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짐을 보여 주었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동시에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Ryff(1989; Ryff & Keyes, 1995)는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들이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들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보이며 특히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이 서로 다를 것을 보고하였다. 자아수용과 환경 지배력이 주관적 안녕감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반면, 나머지 4개의 차원은 다소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환경 지배력과 자율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준다.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긍정적 대인관계의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이루는 6개 차원들이 서로 관련성을 보이지만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차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또한 Ryff와 Keyes(1995)는 이들 6개 차원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차원이 하나의 상위 요인으로 수렴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가 6개의 심리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행복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대부분의 비교

문화적 연구들에서는 지각된 행복의 절대적 수준과 삶의 특정영역에서의 만족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자들이 행복의 기준들을 설정하여 피험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따라서 행복에 대해 피험자들로부터 도출된 기준을 사용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예; Diener et al., 1995).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Lee et al.의 연구(1999)에서는 피험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행복의 기준을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비교문화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개방형 질문들(예;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과 지각된 행복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질문들(예; 행복의 수준을 평정하는 11점 척도)로 이루어진 Happiness Questionnaire를 실시하였다. 행복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피험자들의 응답을 내용분석한 결과 14가지 범주가 얻어졌다(가족,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경제적 부유, 독립성/자율성, 영적/종교적 삶, 인생의 목표, 스트레스 없는 생활, 건강, 경쟁력/능력, 타인들에게 인정받음, 지식/학습, 이타적 행동, 창조성, 예술적 노력). 또한 이들 14가지 범주에 대해 피험자들의 개인적 중요성을 4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한 결과,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지각된 행복의 절대적 수준은 다르지만, 행복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동일한 순서의 기준들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인 차이를 비교해보면, 대인관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또는 종교 등이 서양문화권인 캐나다 대학생들에 비하여 동양문화권인 한국 대학생들에서 보다 빈번히 언급되었다. Chiasson, Dube, & Blondin(1996)의 연구에서는 행복의 요소에 대해 중미와 북미 사람들의 견해를 비교하였다.

Chiasson, Dube, & Blondin은 4가지 문화권의 피험자들(불어권 캐나다인, 영어권 캐나다인, 엘살바도르인, 미국인)에게 행복에 대한 개방형 질문들(예;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에 응답하게 한 후 내용분석한 결과, 행복의 구성요소로서 18가지 요소가 얻어졌다. 개인간 요소들(interpersonal factors)로는 가족관계, 우정, 일반적인 대인관계, 친밀한 관계, 타인을 도움으로써 타인이 행복해지는 것을 봄, 사랑받는다느 느낌이 도출되었고, 개인내적 요소들(intrapersonal factors)로는 가치 있는 목표의 성취, 긍정적인 자아관, 긍정적인 인생관, 개인적 장점(예; 개방성), 종교적 가치, 일에서의 성취,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이 얻어졌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요소들(diverse factors)로는 생활의 사소한 즐거움, 돈, 건강,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사회정치적 여건이 얻어졌다. 행복의 구성요인에 대한 4가지 문화권의 피험자들의 응답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된 요소들은 가족관계, 가치 있는 목표의 성취, 긍정적인 자아관이었다. 문화적인 차이를 비교해보면, 개인주의적 경향(individualism)이 강한 북미 피험자들(영어권 캐나다인, 미국인)은 쾌락적 요소(예; 생활의 사소한 즐거움)와 행복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예; 긍정적 인생관, 개인적 장점)을 빈번히 언급한 반면, 집단주의적 경향(collectivism)이 강한 엘살바도르인들은 종교적 가치와 사회정치적 여건을 빈번히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동양문화권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하지만 서양문화권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내적인 특성들을 표현함으

로써 타인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200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혹은 바람직한 삶(good life)의 구성요인들을 탐색해 보고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그리고 부적 정서)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세 차례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3개 도시의 대학생 425명이 참여하였다. 1차 조사에서 60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좋은 삶의 특성들을 조사한 결과, 196개의 특성들이 도출되었다. 중복된 특성들을 제외한 후 좋은 삶의 특성들 132개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2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특성이 바람직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균 3점 이하의 중요도를 보이는 문항들을 제외한 최종 112 개의 특성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14개의 좋은 삶의 구성요인들로 분류하였다. 이 특성들을 바탕으로 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제작하고 이를 165명의 또 다른 대학생들 집단에게 실시하여 그들 자신의 현재의 삶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검사와 함께 Diener 등(1985)의 삶의 만족도 척도와 정서적 안녕감 척도를 실시하여 대학생들로부터 도출된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와는 정적인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좋은 삶의 구성요인들은 부적 정서와는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좋은 삶의 어떤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수용과 가족정체성 요인

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삶의 질이나 안녕감의 구성요소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이 Diener(1985)나 Ryff(1989)가 제시한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명소 등(2002)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요소들을 직접 탐색, 도출하고, 이들 요인들이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변별이 가능한 일개념성 요인들임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명소 등(2002)의 연구를 전국적인 단위의 연구로 확대하여, 한국인들이 지각하는 행복한, 좋은,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척도를 제작한 후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차 조사: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 탐색

연구목적

행복한 혹은 좋은 삶(이하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 중에 하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국인의 행복한 삶의 주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한국인의 행복한 삶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이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차원을 규명하고, 어떠한 특성들이 그들 차원을 구성하는 가를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1)

무엇이 당신을 행복(불행)하게 합니까? (2) 무엇이 당신을 지금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3) 행복한 혹은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란 어떤 특성들을 가진 사람입니까? 를 질문하였다.

조사대상자

1차 조사는 FGI(Focused Group Interview)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학생 집단과 20-34세, 35-49세, 50-64세의 남, 녀 각각 8-9명으로 구성된 6개 표본집단, 총 61명을 선정하였고 참가자들에게는 1인당 소정의 참가비가 지불되었다.

연구결과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2인 1조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행복한 혹은 좋은 삶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자유롭게 보고하였다. FGI 참가자들로부터 도출된 행복한 삶의 특성들 중에서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종합한 결과, 18개영역에서 152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18개영역은 ① 경제력, ② 성취감 및 자기 수용감, ③ 여가 및 자유, ④ 사회적 지위 및 인정, ⑤ 자기계발, ⑥ 자율성, ⑦ 능력, ⑧ 삶의 목표 및 추구, ⑨ 사회 정치적 여건, ⑩ 이타심, ⑪ 자녀의 올바른 성장, ⑫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 ⑬ 배우자와의 사랑 및 신뢰, ⑭ 대인관계, ⑮ 외모, ⑯

긍정적 인생관, ⑰ 건강, ⑱ 이성간의 사랑 및 신뢰이다.

분석방법

152개 특성 문항에 대한 평균평정치를 계산하여 행복한 삶에 있어서의 각 특성의 중요도 혹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각의 18개 요인들의 일개념성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해 각 요인에 따라 공통요인분석의 단일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통해 1요인으로서의 분산비율과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행복한 삶의 중요도 평정치에 대한 분석 자료는 관찰의 수효(548명)/추정문항(148문항)의 비율이 3.70으로 5배가 되지 않으므로 안정적이고, 확실한 행복한 삶의 차원성을 밝히는 데는 다소 부족한 사례수라고 할 수 있다. Gousuch(1983, p.332)가 주장한 바와 같이 1개의 변수 당 적어도 관찰수효가 5배 이상이어야 하므로, 행복한 삶의 구성차원을 밝히는 요인분석은 관찰치의 수효가 5배 이상으로 확보된 3차 조사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분석도구는 SAS window 8.01을 이용하였다.

2차 조사: 행복한 삶 구성요소들의 중요도 평정

연구목적

한국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들을 가급적 많이 확인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나타난 152개의 특성들이 한국인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152개 특성들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특성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사 2는 조사 1의 자료를 보완, 확인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에 따라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4세 성인 548명을 대상으로 각 특성이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6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6: 매우 중요하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참가비가 지불되었다. 자료 분석은 불성실한 응답자 31명을 제외한 5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1차 조사 결과 도출된 152개 특성 문항의 척도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4개 문항이 평균 척도치 3.5 미만으로 나타나(예를 들면, 배우자(혹은 이성친구) 간 종교가 같다), 이들 문항을 제외한 148개 문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요인 별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실시한 결과와 함께 각 요인에 대한 공통요인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요인 별 중요도 분석 결과, 자녀요인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 및 형제와 관계, 배우자와의 사랑 및 신뢰 순으로 높아 가족간의 관계 특성이 한국인 행복한 삶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개념성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우자, 자녀, 건강, 사회 정치적 여건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하나의 요인에 비교적 높은 요인 부하량(1 요인에 의한 분산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일개념성이 확인되었다. 18개 요인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0에서 .90으로 나타나 비교적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였다. 일개념성과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을 대상으로 문항수정 작업을 실시한 결과 14문항이 삭제되고 8문항이 수정되어 134문항이 도출되었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랑 및 신뢰 요인과 이성간 사랑 및 신뢰 요인이 대상만을 그 내용이 같으므로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이성요인으로 통합되었고, 사회 정치적 여건 요인이 사회 정치 문화 환경 요인으로 재명명되었다. 추가로 자유응답을 참고한 결과 종교 요인을 신설하여 관련 문항을 첨가하였고, 각 하위 요인에서 1-2문항 정도를 보완하여 총 22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156문항이 행복한 삶 척도의 예비문항으로 3차 본조사의 대상이었다.

3차 조사: 행복한 삶 척도 개발

행복한 삶 척도의 예비 문항 구성

조사 1과 2에서 얻어진 한국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총 156개의 문항들을 구성하

였다.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별 문항은 자녀의 바른 성장 12문항, 부모 및 형제(가족)와의 관계 7문항,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10문항, 삶의 목표 및 추구 7문항, 대인관계 9문항, 경제력 8문항, 건강 9문항, 긍정적 인생관 9문항, 능력 및 환경지배력 7문항, 성취감 및 자기 수용감 8문항, 자율성 8문항, 자기계발 9문항, 여가 및 자유 7문항, 사회적 지위 7문항, 이타심 9문항, 외모 8문항, 사회, 정치, 문화 환경 15문항, 종교 7문항이었다(표 3참고).

먼저, 행복한 삶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자녀의 바른 성장'은 자녀가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자라는 정도를 나타내며,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는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일가 친척간의 원만한 관계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는 배우자나 이성 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만족스러운 신체적 접촉 및 성 관계를 갖는 정도를 의미한다. '삶의 목표 및 추구'는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표, 계획 및 비전을 가지고 이를 위해 준비,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대인관계는 자신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친구 또는 타인이 있는 것과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경제력'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노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 정도를 나타낸다. '건강'은 현재 자신의 신체가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며, '긍정적 인생관'은 삶에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려움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능력'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능력이나 실력 및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표 1. 18개 요인의 중요도 평균과 순위 그리고 각 요인의 일개념성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수 (134)	전체(N=517)		고유치	1요인에 의한 분산비율 (%)	신뢰도 (α)
		중요도 순위	중요도 M(SD)			
자녀의 바른 성장	12	1	5.12(.48)	3.76	.79	.83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	7	2	5.07(.51)	2.28	1.15	.77
배우자와의 사랑/신뢰, 삶의 목표 및 추구	10	3	4.98(.51)	2.84	.93	.77
대인관계	7	4	4.93(.58)	2.74	1.02	.81
경제력	7	5	4.88(.55)	2.33	1.10	.76
건강	7	6	4.86(.62)	2.55	1.15	.80
긍정적 인생관	8	7	4.79(.57)	2.52	.97	.77
능력	5	7	4.79(.63)	1.53	1.35	.70
성취감 및 자기 수용감	7	7	4.79(.60)	2.68	1.06	.81
자립성	7	10	4.72(.65)	2.80	1.06	.81
자기개발	6	11	4.68(.58)	1.92	1.19	.76
여가 및 자유	7	12	4.61(.62)	2.57	1.12	.73
사회적 지위 및 인정	7	13	4.48(.63)	2.47	1.06	.78
이타심	7	14	4.40(.70)	2.83	1.09	.82
외모	8	15	4.31(.70)	3.14	1.02	.83
사회, 정치적 여건	8	16	4.23(.68)	2.94	1.07	.80
이성간의 사랑/신뢰*	8	17	4.20(.98)	4.49	.98	.90
	6		5.01(.68)	2.66	1.09	.80

* '이성간의 사랑/신뢰'요인은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순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성취감 및 자기 수용감'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율성'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판단, 결정할 수 있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타인 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기개발'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자신의 성장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가 및 자유'는 문화생활과 스포츠 및 레저 생활을 하고 있고, 이를 즐기는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은 타인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인정받는 현재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심'은 현재 타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정

도를 나타낸다. '외모'는 현재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 정치, 문화 환경'은 현재 우리 사회의 직장구조, 교육, 치안, 문화예술 등의 전반적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현재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이 삶에서 중요한 정도와 종교적 가르침에 살아가려는 정도는 나타낸다.

조사대상자

3차 조사는 전국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2차 조사 결과 개발된 행복한 삶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89)를 함께 실시하였다.

표 2.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징

				단위: 명(%)			
전체		1503		거주지역	서울	720	(47.9)
성별	남	727	(48.4)		인천	148	(9.8)
	여	775	(51.6)		부산	222	(14.8)
연령	20-29세	336	(22.4)		광주	76	(5.1)
	30-39세	329	(21.9)		대전	80	(5.3)
	40-49세	329	(21.9)		춘천	30	(2.0)
	60-64세	172	(11.4)	직업	학생	185	(12.3)
결혼상태	미혼	348	(23.2)		자영업	322	(21.4)
	기혼, 동거	1106	(73.6)		영업직	98	(6.5)
	이혼(별거)	10	(.7)		사무직	267	(17.7)
	사별	39	(2.6)		생산직	72	(4.8)
자녀수	없음	365	(24.3)		전문(관리)직	52	(3.4)
	1명	178	(11.8)		무직	40	(2.7)
	2명	683	(45.4)		시간제	59	(3.9)
	3명	186	(12.4)		기타	50	(3.3)
	4명이상	74	(4.9)				
학력	고졸이하	742	(49.4)				
	전문대졸	176	(11.7)				
	대졸	555	(36.9)				
	대학원이상	29	(1.9)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구통계에 따라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4세 성인 1503명을 선정하여 행복한 삶의 특성 문항들과 6개 심리적 안녕감 요인(자율성, 자기 수용감,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통제력, 자기 성장감, 삶의 목표)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참가비가 지불되었다.

분석방법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자료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877명(남성 431(48.65%)명, 여성 455(51.35%))의 자료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의 156문항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611명(남성 295(48.52%)명, 여성 313(51.48%))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교차타당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인구조를 회전하였으며 이 때 직교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들과 해당 문항들에 대한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a)를 산출하여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행복한 삶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선정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표집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구성개념의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은 SAS windows용 8.01를 이용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windows용 8.03판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 졌다. 첫 단계에서 156문항 전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 요인분석 결과에서 너무 많은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포함되어 요인의 해석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들이 발생하여, 이들 문항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156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한 시초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 당 3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되고 사전에 가정된(조사 1과 2에서) 18개 요인에 부합됨과 동시에 설명 변량이 적절하며 해석이 가능한 요인의 수는 10개였다. 따라서 10개의 요인을 지정하고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한 후 varimax 회전을 시킨 결과에서 요인계수가 낮은 58개의 문항을 제외시켰다.

1단계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가 큰 요인 순서대로 앞의 요인 4개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2차 조사 결과 가정했던 경제력, 성취 및 자기 수용, 여가, 그리고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요인 4개가 함께 묶여 나타났다. 즉 경제적 여유, 성공과 성취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타인으로부터 인정 및 여가활동의 여유 등이 한 요인으로 묶여 있어서 현재까지의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관련된 제반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2는 18요인 모형에서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와 자립성 요인이 한 요인으로 묶였다. 이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위한 계획과 이에 대한 노력 그리고 타인의 의도가 아닌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려는 특성들로 미래의 성공을 위한 제반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3은 18요인 모형에서 종교와 이타심 2개 요인이 한 요인으로 나타나 영적 혹은 도덕적 생활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4는 18요인 모형에서 자녀의 바른 성장과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2 요인이 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관계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10개 요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2차 조사에서 내용분석 결과 도출된 18개 요인들과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으며 단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18개 요인 중 14개 요인들이 위 4개 요인들에서 함께 묶여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2단계 요인분석은 단일 요인으로 도출된 6개 요인들을 제외하고 이들 4개의 요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각 요인분석의 기초요인 해에서 설명 변량 비율과 최종해(final solution)의 해석가능성을 참고로 했을 때 2단계 요인분석 과정에서 추출된 총 요인 수는 16개였다(표 3).

제 1 요인은 삶의 살아가는데 있어서 금전적 여유와 경쟁력이 있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서 '경제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2 요인은 지금까지

지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성취감 등을 반영하므로 ‘성취 및 자기 수용’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3 요인은 일상을 벗어난 문화생활 및 레저 활동 참여 정도를 나타내므로 ‘여가’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4 요인은 타인으로부터 현재의 자신의 지위, 학력 등에 대한 인정받고 있는 정도를 반영하므로 ‘사회적 지위 및 인정’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5 요인은 미래의 자신의 꿈, 비전 그리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6 요인은 자신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자립성을 가지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자립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7 요인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현 사회의 제반 환경적 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를 반영하므로 ‘사회, 정치, 문화, 환경’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8 요인은 현재 자신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종교’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9 요인은 타인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이타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10 요인은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도를 반영하므로 ‘자녀의 바른 성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11 요인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과 친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정도를 반영하므로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12 요인은 배우자(이성)와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배우자(이성)로부터 배려,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13 요인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위에 친밀감을 느끼는 타인이 있는 정

도를 나타내므로 ‘대인관계’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제 14 요인은 현재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외모’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15 요인은 삶의 살아가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처한 곤경이나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긍정적 인생관’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16 요인은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질병이 없고 건강에 자신있어 하는 정도를 반영하므로 ‘건강’요인으로 명명하였다.

16개 요인별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분석 결과도 표 3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요인에서 내적일치도 계수가 .642-.875의 양호한 범위를 보이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실증적 결과인 위 16개 요인들을 살펴보면, 1, 2차 조사에서 내용 중심의 질적 분석 결과 도출된 18개 요인들과 대부분 유사하다. 단지 18개 요인구조에서의 능력요인에 해당했던 문항들이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요인으로 포함되었고, 자기개발과 목표추구문항들이 한 요인으로 묶여서 18개에서 16개 요인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4는 16개 요인 간 상관행렬표이다. 전체적으로 .00에서 .74의 다양한 상관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요인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요인들은 경제력요인과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성취 및 자기 수용요인들로 .70이상의 높은 상

표 3. 행복한 삶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요인계수 행렬표) 및 신뢰도계수

문항	요인 계수	h2
요인 1 : 경제력($\alpha=.875$)		
나는 갖고 싶은 것을 살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682	.619
나는 여가생활을 즐길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659	.622
나는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경제력을 갖추었다.	.609	.508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89	.592
나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갖고있다	.493	.521
나는 자기 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다.	.468	.458
요인 2 : 성취 및 자기수용($\alpha=.832$)		
나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648	.537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595	.519
나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589	.467
나는 지금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며 성취감을 느낀다.	.579	.484
내가 생각대로 나의 삶이 잘 풀려왔다.	.515	.492
요인 3 : 여가($\alpha=.812$)		
나는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는 편이다.	.623	.510
나는 스포츠 및 레저생활을 자주 즐긴다.	.612	.485
나는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자주 간다.	.604	.473
나는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자주 즐긴다.	.497	.433
나는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있다.	.488	.430
요인 4 : 사회적 지위 및 인정($\alpha=.843$)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548	.586
나는(혹은 배우자가)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487	.444
나는 학력이 높다.	.444	.364
나자신(혹은가족)의사회적위치로인해서남들로부터인정과부러움을받고있다.	.443	.534
내가(혹은 배우자가)하고 있는 일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440	.450
내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29	.379
내가(직장이나가정에서)일한결과에대해서타인으로부터인정을받아왔다.	.420	.278
요인 5 :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alpha=.875$)		
나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715	.550
나 자신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665	.460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651	.514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616	.426
나는 성취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 생활한다.	.601	.422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567	.395
나는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나간다.	.549	.435
나는 장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대비하고 있다.	.539	.347
나는 늘 내가 추구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	.508	.398
내 삶의 상황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관심이 많다.	.445	.264

요인 6 : 자립성($\alpha=.642$)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	.537	.323
나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04	.270
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498	.317
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기대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491	.271
타인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336	.146
요인 7 : 사회, 정치, 문화 환경($\alpha=.807$)		
나는 우리사회의 직장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637	.539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와 교육환경을 신뢰할 수 있다.	.633	.484
나는우리사회에서로신뢰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어있다고생각한다.	.601	.487
나는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564	.359
나는 우리 사회의 치안유지가 잘되어있다고 생각한다.	.515	.376
나는우리사회가테러리듬이나전쟁의위협으로부터안전하다고생각한다.	.494	.292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적 환경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397	.238
나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고 생각한다.	.388	.192
나는우리사회가학연,지연,혈연보다는능력을중시하는사회라고생각한다.	.372	.157
요인 8 : 종교($\alpha=.836$)		
신앙과 종교는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	.831	.776
나는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730	.657
종교는 내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다.(R)	.724	.550
나는 종교적 가르침(예;성경,불경)에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710	.555
내종교나신앙을가족이나친구,친지에게권할생각은없다.(R)	.570	.329
요인 9 : 이타심($\alpha=.867$)		
나는 종종 남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한다.	.686	.507
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	.556	.318
내 소득(혹은용돈)의일부를어려운이웃이나단체에기부하고있다.	.554	.359
나는 자원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R)	.477	.243
요인 10 : 자녀의 바른 성장($\alpha=.688$)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	.627	.405
내 자녀들은 서로우애가 돈독하다.	.508	.311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506	.337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	.504	.281
나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해준다.	.445	.205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334	.147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편이다.	.285	.089
요인 11 :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관계($\alpha=.668$)		
나는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낸다.	.651	.434
나는 부모님께 인정받는다.	.555	.333
나는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478	.265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474	.299

요인 12 :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alpha=.762$)		
우리 부부(나와 내 이성친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준다.	.634	.567
나는 배우자(이성친구)와 대화를 자주한다.	.574	.424
내 배우자(이성친구)는 가정(나의)일을 잘 도와준다.	.469	.296
내 배우자는 가정을 우선시하고 가정에 충실하다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은 내게 충실하다)	.455	.342
나는 배우자(이성친구)와 만족스러운 성생활(신체적 접촉)을 하고있다.	.424	.265
나는 배우자(이성친구)에게 격려와 지지를 받는다.	.419	.344
나는 배우자(이성친구)를 신뢰하지 않는다.(R)	.381	.379
요인 13 : 대인관계($\alpha=.732$)		
나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많이 있다.	.624	.512
나는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여러 명 있다.	.568	.409
나는 고민을 들어 줄 친구나 이웃이 많지 않다.(R)	.561	.456
나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522	.431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R)	.407	.381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56	.227
나는 사람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 한다	.283	.243
요인 14 : 외모($\alpha=.728$)		
나는 균형잡힌 외모를 갖고 있다.	.621	.565
나는 남들이 호감을 갖는 외모를 갖고 있다.	.603	.487
나는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 할 수 있는 외모를 갖추고 있다.	.600	.492
나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R)	.421	.345
나는 외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411	.282
나는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325	.170
요인 15 : 긍정적 인생관($\alpha=.728$)		
나는 특별히 욕심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산다.	.502	.317
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495	.347
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431	.375
나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쉽게 만족하는 편이다.	.412	.308
나는 일이 잘못 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346	.195
요인 16 : 건강($\alpha=.685$)		
나는 건강에 대해 자신이 없다.(R)	.586	.422
나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R)	.512	.351
나는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	.494	.323
나는 나와 비슷한 연령 대에 비해서 젊고 건강하다.	.349	.396
우리 부부(나와 내 이성친구)가 모두 건강하다.	.330	.291

관을 보였다. 즉 삶의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은 생활과 자립성, 성취 및 자기 수용요인이 높은 상
 만큼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 관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자
 해 성취감을 가지며,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 신에 대한 수용감이 크고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긍정적 인 다.

기대한 바대로 자녀의 바른 성장요인과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요인은 상호간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 및 친지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진실한 사랑 및 신뢰 관계를 형성한 사람일수록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요인들은 종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에서 .60 사이의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종교 요인은 대체적으로 다른 행복 요인들과 상관이 낮았으며, 종교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이타심으로 나타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인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배려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형제와의 관계, 긍정적 인생관 순으로 종교와 상관이 높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구성개념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응답자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611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산 방법은 측정변수간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이 약할 때 사용하는 일반 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 Method)이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요인의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요인 당 3문항을 선정하여 총 48문항으로 구성된 공변량 행렬 (부록참고)을 이용하였다).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부합지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부합지수는 모형의 부합도로는 일반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비표준부합치(NNFI), 표준부합치(NFI), 원소간 근접오차(RMSEA), 비교합치도(CFI)가 함께 사용되었다. 표 5에 제시된

표 4. 요인간 상관계수 행렬

요인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F12	F13	F14	F15	F16
경제력	(F1) 1.00
성취 및 자기수용	(F2) .70*	1.00
여가	(F3) .59*	.63*	1.00
사회적 지위 및 인정	(F4) .74*	.75*	.59*	1.00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F5) .48*	.67*	.61*	.61*	1.00
자립성	(F6) .46*	.59*	.39*	.43*	.63*	1.00
사회, 정치, 문화, 환경	(F7) .32*	.51*	.36*	.42*	.33*	.13	1.00
종교	(F8) .14*	.19*	.13	.20*	.11	.14*	.02	1.00
이타심	(F9) .31*	.56*	.53*	.48*	.44*	.29*	.22*	.51*	1.00
자녀의 바른 성장	(F10) .37*	.34*	.20*	.23*	.37*	.48*	.05	.08	.11	1.00
부모친지간의원만한관계	(F11) .60*	.77*	.48*	.57*	.66*	.57*	.41*	.23*	.41*	.43*	1.00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F12) .47*	.61*	.48*	.53*	.54*	.58*	.25*	.16*	.31*	.50*	.64*	1.00
대인관계	(F13) .42*	.41*	.60*	.41*	.43*	.36*	.24*	.10	.38*	.33*	.50*	.34*	1.00	.	.	.
외모	(F14) .40*	.50*	.61*	.55*	.58*	.41*	.29*	.03	.31*	.29*	.43*	.33*	.40*	1.00	.	.
긍정적 인생관	(F15) .39*	.60*	.42*	.38*	.45*	.72*	.34*	.19*	.41*	.27*	.61*	.46*	.35*	.29*	1.00	.
건강	(F16) .31*	.35*	.34*	.32*	.39*	.25*	.09	.00	.16*	.23*	.29*	.27*	.36*	.37*	.28*	1.00

표 5. 16요인 모형의 부합지수

	NFI	NNFI	GFI	AGFI	RMSEA	CFI
16 요인 모형	.93	.97	.90	.87	.03	.97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를 검토해 볼 때, 조정부합치(AGFI)를 제외한 모든 부합지수가 좋은 부합지수의 기준인 .90 이상이었고, 원소간 근접오차(RMSEA) 또한 .05미만이었다.

이와 함께 표 6의 요인계수 행렬표에 제시된 모든 계수의 고정지수(T-value)들은 2.0이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간 상관행렬을 살펴본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시된 상관 행렬표와 유사한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모형 확인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계수와 부합지수 등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에는 모두 1503명의 전체 자료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97문항이 사용되었다.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아닌 좋은 삶 혹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측정하는 대표적 도구인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와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행복한 삶 척도의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척도들 간의 상관 분석에 앞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모든 구성요인이 .60이상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평균 변별도에서도 자율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30 이상의 양호한 변별도 지수를 보였다.

행복한 삶 요인들과 심리적 안녕감 요인들간의 상관계수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행복한 삶 척도 전체와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전체 상관은 .38로 유의미하였고, 행복한 삶의 요인들 중 전체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은 자기 계발 및 목표추구, 대인관계, 자립,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건강 요인 순으로 .3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전체 행복한 삶과 심리적 안녕감 하위 구성요인과의 상관은 자아수용, 환경지배력, 삶의 목적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각각의 하위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를 보면 종교 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상한 바와 같이 두 척도 간에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요인들 간에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자율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하위 요인은 자립성이었으며, 삶의 목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요인은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였으며, 긍정적 대인관계는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수용은 성취 및 자기 수용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종교 요인에서와 같이 .10 미만의 낮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들도 여러 경우에서 나타났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16요인 요인계수 행렬표)

문항	요인 계수	SMC
요인 1 : 경제력		
나는 갖고 싶은 것을 살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80	.63
나는 여가생활을 즐길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79	.60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경제력을 갖추었다.	.79	.60
요인 2 : 성취 및 자기수용		
나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74	.58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룬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78	.55
나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69	.55
요인 3 : 여가		
나는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는 편이다.	.79	.54
나는 스포츠 및 레저생활을 자주 즐긴다.	.74	.45
나는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자주 간다.	.71	.40
요인 4 : 사회적 지위 및 인정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53	.29
나는(혹은 배우자가)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70	.53
내가(혹은 배우자가)하고 있는 일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65	.39
요인 5 :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나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78	.59
나 자신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72	.55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69	.58
요인 6 : 자립성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	.48	.36
나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46	.33
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55	.46
요인 7 : 사회, 정치, 문화 환경		
나는 우리사회의 직장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52	.33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와 교육환경을 신뢰할 수 있다.	.52	.30
나는우리사회에서로신뢰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어있다고생각한다.	.77	.55
요인 8 : 종교		
신앙과 종교는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	.16	.73
나는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15	.67
종교는 내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다.(R)	.93	.49
요인 9 : 이타심		
나는 종종 남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한다.	.85	.57
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	.63	.35
내 소득(혹은용돈)의일부를어려운이웃이나단체기부하고있다.	.70	.36

요인 10 : 자녀의 바른 성장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	.37	.38
내 자녀들은 서로우애가 돈독하다.	.40	.38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	.39	.33
요인 11 :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나는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낸다.	.49	.35
나는 부모님께 인정받는다.	.61	.48
나는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50	.36
요인 12 :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우리 부부(나와 내 이성친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준다.	.70	.69
나는 배우자(이성친구)와 대화를 자주한다.	.55	.33
내 배우자(이성친구)는 가정(나의)일을 잘 도와준다.	.59	.39
요인 13 : 대인관계		
나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많이 있다.	.65	.51
나는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여러명 있다.	.67	.51
나는 고민을 들어 줄 친구나 이웃이 많지 않다.(R)	.47	.24
요인 14 : 외모		
나는 균형잡힌 외모를 갖고 있다.	.85	.71
나는 남들이 호감을 갖는 외모를 갖고 있다.	.66	.44
나는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 할 수 있는 외모를 갖추고 있다.	.63	.48
요인 15 : 긍정적 인생관		
나는 특별히 욕심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산다.	.59	.40
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55	.43
나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쉽게 만족하는 편이다.	.50	.30
요인 16 : 건강		
나는 건강에 대해 자신이 없다.(R)	.65	.33
나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R)	.44	.16
나는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	.71	.60

표 7.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 평균변별도 및 평균

	문항수	α	평균변별도	평균	표준편차
자율성	12	.63	.27	3.91	.41
환경 지배력	5	.68	.43	4.08	.56
개인적 성장	6	.62	.36	3.88	.56
삶의 목적	8	.75	.44	3.87	.58
긍정적 대인관계	13	.80	.43	4.05	.51
자아수용	14	.85	.49	3.77	.54

논 의

세계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혹은 좋은 삶의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 척도를 제작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FGI와 중요도 평정 조사, 그리고 본 조사는 3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① 경제력, ② 성취감 및 자기 수용, ③ 여가, ④ 사회적 지위 및 인정, ⑤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⑥ 자립성, ⑦ 사회, 정치, 문화, 환경, ⑧ 종교, ⑨ 이타심, ⑩ 자녀의 바른 성장, ⑪ 부모/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⑫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⑬ 대인관계, ⑭ 외모,

⑮ 긍정적 인생관, ⑯ 건강 등의 16개 하위척도들로 구성된 행복한 삶 척도가 개발되었다. FGI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분석 결과 도출된 18개 구성요인 중 ‘능력’요인에 해당했던 문항들이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요인으로 포함되었고, 자기개발 문항들과 목표추구문항들이 한 요인으로 묶여서 최종 16개 요인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능력이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과 자기개발이라는 구성개념에 목표설정과 추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 16개 요인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소 등(2002)의 연구에서 도출된 14개 요인들(긍정적 대인관계, 자기관리 및 성실성, 자기수용, 삶의 목적, 가족 정체성, 사랑, 이타성, 자율성, 건강, 중

표 8. 행복한 삶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과 의 상관

요인	자율성 지배력	환경 성장	개인적 목적	삶의 대인관계	긍정적 수용	자아	전체
경제력	.06*	.19***	.06*	.11***	.02	.31***	.17***
성취 및 자기수용	.14***	.25***	.12***	.22***	.10***	.43***	.28***
여가	.07**	.16***	.15***	.13***	.07**	.30***	.20***
사회적 지위 및 인정	.12***	.20***	.17***	.18***	.09***	.36***	.25***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27***	.31***	.26***	.37***	.18***	.37***	.40***
자립성	.37***	.31***	.18***	.27***	.19***	.23***	.34***
사회, 정치, 문화, 환경	-.15***	.03	-.04	-.09***	-.17***	.11***	-.06*
종교	.01	.12***	-.03	.04	.03	.10***	.06*
이타심	.02	.16***	.10***	.11***	.05*	.23***	.16***
자녀의 바른 성장	.12***	.20***	.08***	.15***	.15***	.18***	.20***
부모친지간의 원만한관계	.18***	.24***	.09***	.19***	.21***	.25***	.26***
배우자(이성)와의 사랑/신뢰	.22***	.22***	.16***	.28***	.22***	.28***	.31***
대인관계	.26***	.27***	.22***	.21***	.41***	.25***	.36***
외모	.20***	.16***	.14***	.14***	.09***	.23***	.21***
긍정적 인생관	.08**	.25***	.03	.12***	.17***	.20***	.19***
건강	.25***	.20***	.19***	.24***	.22***	.26***	.30***
전체	.22***	.34***	.19***	.28***	.20***	.45***	.38***

교, 학업적 능력과 관심, 자기개발, 경제력, 가치관 및 신념, 삶의 만족)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국외의 연구결과 도출된 지식/학습, 창조성, 예술적 노력과 같은 심미적 및 학구적 요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Lee et al., 1999). 전체적으로 볼 때, 위 16개 요인들은 심리학 이론들에서 제기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6개 요인들(자아수용,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삶의 영역들을 비교적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및 이성, 자녀, 부모친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사회 정치 문화 환경적 여건, 종교 등이 빈번하게 언급된 점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 가족, 대인관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또는 종교 등이 서양문화권에 비하여 동양문화권에서 보다 빈번히 언급됨을 보고한 Lee 등(1999)의 연구결과나 종교적 가치와 사회 정치적 여건이 개인주의적 문화권에 비해서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 보다 빈번하게 언급됨을 보고한 Chiasson 등(1996)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난 것이었다.

행복한 삶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에서 양호한 수치를 보였으며, 또한 행복한 삶 척도 전체와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전체 상관은 .38로 유의미하였다. 행복한 삶의 하위척도들 중에서 특히 자기 개발 및 목표추구, 대인관계, 자립성, 배우자(이성)와의 사

랑 및 신뢰, 건강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30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전체 행복한 삶과 심리적 안녕감 하위 구성요인과의 상관은 자아수용, 환경지배력, 삶의 목적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여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아수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각각의 하위 구성요인간 상관을 보면 두 척도 간에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요인들 간에 상관이 높게 나타난 반면, ±.10 미만의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들도 나타나 행복한 삶 척도가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인들이 포함되며, 따라서 Ryff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 구성개념과는 어느 정도 변별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삶의 질이나 안녕감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Diener(1985)나 Ryff(1989)가 제시한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구성요소들을 직접 탐색, 도출하고, 이들 요인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별이 가능한 일개념성 요인들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복의 요인이나 기준을 도출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Lee et al., 1999; Chiasson, Dube, & Blondin, 1996)이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구성요인들을 도출하는데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한 질적 분석 외에 전국적인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요인분석(탐색적 및 확인적)을 통해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들이 Ryff(1989)가 제시한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검

통합으로써 앞으로 삶의 질 혹은 안녕감의 구성 개념에 대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한국인의 행복공식’을 산출하여 개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러 가지 장면에서 활용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 연령층을 확대하여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의 특성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40.
-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 (2002).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분석. 2002 한국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antril, H. (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 J.: Rutgers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 Hill.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hiasson, N., Dube, L., & Blondin, J. (1996). A look into the folk psychology of four cultural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 No. 6, 673-69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 Emmons, R.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 Larsen, R. J. (1984). Temporal stability and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of affective, behavioral, and cogni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871-883.
- Diener, E., Suh, E. Smith, H., & Shao, L.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 occur? *Social Indicator Research*, 34, 7-32.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89-97.
- Kammann, R., Farry, M., & Herbison, P. (1984). The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sense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 91-115.
- Lee, D., Park, S., Uhlemann, M., & Patsula, P. (1999). What makes you happy? : A comparison of self-reported criteria of happiness between two cul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351-362.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mitte, P.S., & Ryff, D.C. (1997). Personality and well-being: What is the conn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Stones, M. J., & Kozma, A. (1985).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scales: A second order factorial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 19-28.
- Warr, P., Barter, J., & Brownbridge, G. (1983). On the independ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affec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644-651.

원고 접수: 2003 7월 30일

게재 결정: 2003년 8월 13일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Happy Life and Development of the Happy Life Scale among Korean Adults

Myoung-So Kim Hye-Won Kim Kyung-Ho Cha

Hoseo University

Jee-Young Lim

Young-Seok Han

Maumsara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erceptions of Korean adults about what is a happy life and what can make them happy. 61 Korean adults participated in FGI (Focused Group Interview), and content analysis of their responses yielded 18 categories with 148 characteristics of a happy life. The list of 153 items was administered to 517 Korean adults to assess the importance of each item through the 6-point Likert scale.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showed that most factors were unidimensional with moderate reliability. A systematic effort was made to improve the relevance of the list to happy life by removing or adding some items and introducing a new category of religion, which resulted in 156 items with 18 categories. The 156 happy life characteristics were administered to a nationwide sample of 1503 Korean adults in order to assess their happiness through 6-point Likert scale. Responses from 877 participants were submitted to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58 items with low factor coefficient were deleted. The Happy Life Inventory consisted of 97 items and 16 facto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responses from the 611 adults showed that the 16 factor structure derived from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appropriat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of happy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upport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Happy Life Inventor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s of this area were discussed.

Keywords: Happy Life Scale, quality of life, psychological well-being

부록.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공변량 행렬

공변량 행렬은 다음의 순서와 같다.

- (1)경제력a, (2)경제력b, (3)경제력c, (4)성취 및 자기수용a, (5)성취 및 자기수용b,
- (6)성취 및 자기수용c, (7)여가a, (8)여가b, (9)여가c, (10)사회적 지위 및 인정a,
- (11)사회적 지위 및 인정b, (12)사회적 지위 및 인정c, (13)자기계발 및 목표추구a,
- (14)자기계발 및 목표추구b, (15)자기계발 및 목표추구c, (16)자립성a, (17)자립성b,
- (18)자립성c, (19)사회,정치, 문화, 환경a, (20)사회,정치, 문화, 환경b,
- (21)사회,정치, 문화, 환경c, (22)종교a, (23)종교b, (24)종교c, (25)이타심a, (26)이타심b,
- (27)이타심c, (28)자녀의 바른 성장a, (29)자녀의 바른 성장b, (30)자녀의 바른 성장c,
- (31)부모친지간의원만한관계a, (32)부모친지간의원만한관계b, (33)부모친지간의원만한관계c,
- (34)배우자(이성)와의 사랑a, (35)배우자(이성)와의 사랑b, (36)배우자(이성)와의 사랑c,
- (37)대인관계a, (38)대인관계b, (39)대인관계c, (40)외모a, (41)외모b, (42)외모c,
- (43)긍정적 인생관a, (44)긍정적 인생관b, (45)긍정적 인생관c, (46)건강a, (47)건강b,
- (48)건강c,

(1)	0.319																			
(2)	0.870	1.431																		
(3)	0.795	0.783	1.285																	
(4)	0.486	0.533	0.412	1.147																
(5)	0.626	0.667	0.554	0.689	1.332															
(6)	0.458	0.478	0.440	0.573	0.532	1.145														
(7)	0.488	0.561	0.437	0.439	0.455	0.472	1.355													
(8)	0.529	0.536	0.380	0.428	0.399	0.518	0.768	1.623												
(9)	0.503	0.554	0.424	0.375	0.518	0.397	0.691	0.671	1.596											
(10)	0.339	0.355	0.273	0.370	0.386	0.361	0.222	0.230	0.252	1.156										
(11)	0.715	0.671	0.585	0.525	0.614	0.391	0.456	0.489	0.557	0.387	1.282									
(12)	0.561	0.519	0.480	0.467	0.488	0.408	0.428	0.438	0.484	0.406	0.692	1.329								
(13)	0.347	0.273	0.279	0.396	0.446	0.448	0.349	0.386	0.272	0.347	0.324	0.283	1.269							
(14)	0.438	0.424	0.307	0.440	0.409	0.625	0.503	0.669	0.477	0.368	0.430	0.400	0.631	1.269						

(15)	0.203	0.211	0.167	0.314	0.337	0.388	0.291	0.299	0.267	0.319	0.266	0.242	0.699
	0.576	1.023											
(16)	0.060	0.066	0.096	0.164	0.137	0.236	0.079	0.089	0.067	0.157	-0.033	0.001	0.261
	0.257	0.286	0.785										
(17)	0.095	0.058	0.146	0.119	0.067	0.259	0.066	0.088	0.045	0.194	-0.027	0.024	0.214
	0.204	0.252	0.296	0.852									
(18)	0.234	0.203	0.209	0.260	0.260	0.327	0.188	0.183	0.155	0.253	0.181	0.124	0.318
	0.351	0.303	0.279	0.313	0.768								
(19)	0.307	0.444	0.332	0.299	0.364	0.264	0.268	0.264	0.351	0.214	0.423	0.369	0.184
	0.218	0.122	-0.095	-0.055	0.051	1.322							
(20)	0.226	0.260	0.219	0.321	0.326	0.240	0.234	0.256	0.336	0.156	0.402	0.346	0.188
	0.185	0.170	-0.078	-0.050	0.016	0.616	1.317						
(21)	0.390	0.387	0.371	0.350	0.433	0.406	0.348	0.271	0.348	0.263	0.428	0.370	0.278
	0.277	0.231	-0.045	0.038	0.126	0.667	0.586	1.342					
(22)	0.208	0.130	0.152	0.198	0.238	0.166	0.113	0.055	0.201	0.245	0.222	0.196	0.210
	0.112	0.185	0.064	0.103	0.121	0.071	0.179	0.122	2.088				
(23)	0.245	0.107	0.154	0.207	0.268	0.171	0.121	0.029	0.232	0.171	0.235	0.284	0.168
	0.048	0.042	-0.004	-0.045	0.059	0.134	0.228	0.122	1.553	2.394			
(24)	0.064	0.009	0.053	0.111	0.084	0.168	0.091	0.030	0.083	0.071	0.051	0.146	0.058
	0.074	0.087	0.051	0.026	0.051	-0.073	0.019	-0.086	1.154	1.177	2.119		
(25)	0.428	0.376	0.295	0.435	0.537	0.447	0.517	0.404	0.635	0.307	0.529	0.449	0.308
	0.404	0.251	0.023	0.032	0.184	0.324	0.295	0.312	0.556	0.645	0.310	1.607	
(26)	0.204	0.154	0.162	0.296	0.298	0.299	0.217	0.240	0.310	0.235	0.197	0.175	0.268
	0.234	0.201	0.126	0.136	0.133	0.090	0.155	0.118	0.449	0.463	0.292	0.639	1.273
(27)	0.331	0.393	0.263	0.429	0.451	0.326	0.436	0.388	0.399	0.221	0.453	0.380	0.386
	0.323	0.227	0.021	-0.054	0.071	0.404	0.321	0.308	0.681	0.701	0.372	0.790	0.374
	1.936												
(28)	0.028	0.061	0.111	0.029	0.047	0.060	0.026	0.019	0.015	0.012	-0.009	-0.038	0.064
	0.065	0.086	0.139	0.142	0.071	-0.057	-0.051	-0.023	0.005	-0.072	0.022	-0.015	0.014
	-0.055	0.440											
(29)	0.112	0.090	0.103	0.135	0.069	0.085	0.061	0.069	0.077	0.064	0.045	0.020	0.119
	0.103	0.142	0.083	0.149	0.095	-0.041	-0.071	0.015	0.053	0.029	0.096	0.097	0.075
	0.014	0.172	0.518										

(30)	0.078	0.071	0.092	0.017	0.025	0.089	0.025	0.035	0.035	-0.018	-0.008	-0.021	0.050
	0.089	0.033	0.158	0.099	0.109	-0.030	-0.104	-0.054	-0.045	-0.067	-0.010	-0.048	0.000
	-0.107	0.188	0.148	0.582									
(31)	0.263	0.257	0.260	0.254	0.282	0.169	0.193	0.137	0.195	0.173	0.221	0.122	0.210
	0.167	0.144	0.098	0.138	0.165	0.054	0.056	0.167	0.112	0.046	0.041	0.226	0.210
	0.033	0.119	0.162	0.092	0.844								
(32)	0.305	0.304	0.309	0.424	0.403	0.324	0.188	0.192	0.150	0.283	0.219	0.177	0.380
	0.311	0.300	0.202	0.247	0.218	0.121	0.080	0.199	0.147	0.071	0.033	0.225	0.232
	0.102	0.107	0.130	0.039	0.367	0.910							
(33)	0.220	0.179	0.236	0.244	0.280	0.248	0.146	0.175	0.243	0.181	0.160	0.087	0.217
	0.251	0.227	0.157	0.175	0.244	0.048	-0.012	0.182	0.203	0.067	0.095	0.217	0.172
	0.040	0.163	0.139	0.144	0.345	0.281	0.934						
(34)	0.293	0.280	0.266	0.279	0.326	0.357	0.279	0.280	0.268	0.203	0.226	0.231	0.307
	0.342	0.229	0.206	0.235	0.238	0.034	-0.008	0.139	0.167	0.082	0.132	0.202	0.177
	0.112	0.134	0.209	0.167	0.287	0.248	0.329	0.832					
(35)	0.259	0.329	0.211	0.285	0.284	0.265	0.271	0.259	0.241	0.185	0.188	0.219	0.240
	0.237	0.164	0.160	0.192	0.200	0.049	-0.011	0.128	0.164	0.130	0.078	0.196	0.106
	0.245	0.057	0.160	0.067	0.157	0.204	0.249	0.449	1.072				
(36)	0.165	0.197	0.170	0.230	0.223	0.259	0.250	0.284	0.243	0.195	0.195	0.172	0.305
	0.282	0.245	0.206	0.187	0.155	0.075	0.048	0.135	0.115	0.020	-0.032	0.171	0.097
	0.195	0.108	0.173	0.160	0.219	0.215	0.234	0.456	0.376	1.045			
(37)	0.323	0.275	0.265	0.315	0.243	0.288	0.367	0.283	0.418	0.290	0.264	0.279	0.246
	0.345	0.167	0.083	0.164	0.166	0.101	0.138	0.249	0.121	0.131	0.102	0.290	0.189
	0.075	0.058	0.100	0.064	0.155	0.199	0.182	0.175	0.164	0.122	1.073		
(38)	0.251	0.245	0.170	0.216	0.208	0.276	0.414	0.318	0.278	0.160	0.160	0.096	0.236
	0.263	0.212	0.160	0.111	0.217	-0.028	0.015	0.159	0.079	0.023	0.115	0.256	0.118
	0.181	0.105	0.107	0.109	0.187	0.218	0.280	0.203	0.203	0.112	0.452	1.054	
(39)	-0.019	0.006	0.044	0.115	0.052	0.061	0.160	0.021	0.036	0.132	-0.049	-0.092	0.052
	0.050	0.042	0.119	0.151	0.092	-0.343	-0.256	-0.131	-0.046	-0.234	0.168	-0.070	-0.009
	-0.222	0.086	0.083	0.104	0.151	0.127	0.131	0.169	0.085	0.090	0.428	0.369	1.411
(40)	0.420	0.404	0.362	0.380	0.438	0.403	0.437	0.603	0.444	0.349	0.481	0.407	0.385
	0.511	0.323	0.098	0.145	0.286	0.358	0.176	0.292	0.009	0.046	-0.196	0.346	0.143
	0.293	0.021	0.052	0.103	0.132	0.238	0.213	0.192	0.177	0.177	0.229	0.207	0.096

	1.307												
(41)	0.336	0.178	0.314	0.250	0.280	0.299	0.318	0.408	0.404	0.267	0.393	0.350	0.412
	0.364	0.309	0.083	0.087	0.178	0.269	0.270	0.214	0.076	0.153	-0.005	0.302	0.123
	0.150	0.009	0.025	0.011	0.101	0.121	0.111	0.122	0.109	0.101	0.225	0.169	-0.016
	0.638	1.225											
(42)	0.343	0.318	0.285	0.284	0.365	0.310	0.337	0.422	0.397	0.241	0.405	0.338	0.268
	0.355	0.235	0.042	0.014	0.193	0.246	0.209	0.213	0.163	0.219	-0.033	0.335	0.112
	0.308	0.061	0.035	0.026	0.082	0.169	0.096	0.122	0.152	0.083	0.186	0.160	-0.003
	0.693	0.549	1.070										
(43)	0.181	0.167	0.188	0.246	0.241	0.176	0.142	0.080	0.146	0.183	0.092	0.101	0.121
	0.125	0.175	0.243	0.290	0.229	0.045	0.009	0.168	0.169	0.072	0.101	0.184	0.192
	0.024	0.069	0.124	0.092	0.215	0.265	0.299	0.263	0.177	0.125	0.122	0.148	0.156
	0.081	0.037	0.080	1.029									
(44)	0.173	0.200	0.118	0.234	0.267	0.310	0.199	0.162	0.203	0.167	0.120	0.088	0.206
	0.257	0.247	0.207	0.244	0.281	0.025	0.039	0.111	0.152	0.061	0.132	0.245	0.163
	0.101	0.065	0.098	0.113	0.139	0.204	0.256	0.262	0.181	0.134	0.183	0.209	0.149
	0.137	0.085	0.146	0.399	0.839								
(45)	0.270	0.289	0.249	0.270	0.359	0.361	0.284	0.256	0.249	0.119	0.272	0.197	0.207
	0.257	0.182	0.088	0.132	0.291	0.287	0.196	0.322	0.235	0.178	0.101	0.297	0.119
	0.293	0.013	0.016	0.009	0.057	0.136	0.212	0.155	0.154	0.045	0.187	0.201	-0.040
	0.258	0.149	0.197	0.268	0.312	1.046							
(46)	0.035	-0.036	0.095	0.105	0.098	0.094	0.071	0.076	0.063	0.067	0.025	0.058	0.148
	0.120	0.132	0.125	0.080	0.107	-0.130	-0.194	-0.079	-0.098	-0.112	0.164	-0.059	0.027
	-0.073	0.033	0.022	0.157	0.125	0.123	0.147	0.149	0.083	0.090	0.078	0.185	0.177
	0.195	0.129	-0.001	0.080	0.084	0.030	1.564						
(47)	-0.171	-0.228	-0.071	-0.059	-0.118	-0.065	-0.024	-0.027	-0.185	-0.084	-0.318	-0.202	0.086
	0.002	0.051	0.196	0.129	0.069	-0.385	-0.487	-0.283	-0.190	-0.205	0.089	-0.265	0.003
	-0.252	0.113	0.118	0.182	0.147	0.089	0.107	0.140	0.085	0.036	-0.052	0.114	0.320
	-0.056	-0.102	-0.148	0.066	0.037	-0.103	0.631	1.867					
(48)	0.136	0.169	0.337	0.166	0.137	0.238	0.223	0.255	0.141	0.135	0.124	0.135	0.192
	0.248	0.219	0.107	0.145	0.181	0.089	-0.035	0.115	-0.044	-0.175	-0.024	0.088	0.131
	-0.065	0.092	0.119	0.123	0.181	0.142	0.181	0.155	0.116	0.174	0.165	0.238	0.097
	0.235	0.224	0.146	0.150	0.132	0.133	0.522	0.399	1.098				